

2020 수시 면접의 정석

with 속초삼촌 & 구미 김사부

feat. 수똥 배용효

A series of five parallel blue lines of varying lengths, slanted diagonally from the bottom-left towards the top-right, extending across the right half of the page.

Prologue 너 자신을 속여라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 합니다.

학생들은 면접장에 들어서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합니다. '그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 그리고 대학이 나를 받아들이면 되는거야.'라고 멋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잘 못됐습니다. 여러분을 면접장에서 기다리는 면접관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마주한 '서류상 이미지'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에, 추천서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있나요? 진짜 모습 보다 '이렇게 되고 싶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는 서술로 여러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조리 있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 나는 똑똑합니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 잘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어느 쪽도 아닙니다. 서류에서 보여주려고 의도한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나'는 잊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가자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평가자인 면접관은 '서류상의 이미지'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면접장에 여러분을 불렀고,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일 모습은 바로 '서류상의 이미지'라는 점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면접 당일, 면접장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을 면접관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설정합니다. 자기소개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설정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매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내가 되려했던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접장에서 떨지 않습니다. 더듬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지금까지의 '너'를 모른다
면접장에 들어서서 니가 '만들어 낸 모습'을 진짜 너로 알 뿐이다

CHAPTER

1

**면접,
이만큼만 해도
평균 이상은
한다.**

CHAPTER 1-1. 면접에 정답이 존재한다? NO~~~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면접을 '서류확인면접'이라고 합니다. 대학 측이 문제를 내고 답을 묻는 면접을 '제시문면접'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서류확인면접에 정답은 없습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사례를 묻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서류확인면접'에 '이렇다'하고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시문면접'에는 어떨까요? 대학이 '문제'를 냈으니 '정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며 많은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 소재로 00어때요?” 제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좋은 소재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또는 대학에서 준비한 문제를 내고 평가자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이제 열아홉인 학생이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100명이 이 글을 읽으면 최소한 30개 이상의 다른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 중 어떤 경험이 정답일까요? 전공에 관한 경험? 공부 잘해서 상 받은 경험? 내 인성이 두드러지는 경험? 어떤 경험이어도 관계없습니다. 핵심은 그 뒤. 꼬리질문입니다. “그 경험이 인상 깊은 이유가 뭐죠?” 면접의 평가는 여기서 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매끄럽게 답하고 있나요?

면접에 정답은 없다
꼬리 질문에 어떻게 설득력을 더하느냐가 평가의 주요 대상이다

CHAPTER 1-2. 평가자의 기준에 맞춰라? NO~~~

“chapter1에서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가자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지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면접 배점을 공개한 대학이 있지만,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째, 준비 할 수가 없습니다. A,B,C대학이 서로 다른 배점을 준다고 하면 그에 맞춘 면접 답안을 준비해 갈건가요? 그리고 기준이 독특한 대학 면접 답안은 어떻게 준비하죠?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이 기준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소재가 없다면? 준비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준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평가 받을지가 의문입니다. 바로 아래의 이유 때문입니다.

둘 째, 평가 기준이 모호합니다. 국어국문과에 지원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이 무엇인가요?” 이 학생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요? 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이미 지난 내 3년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도, 자기소개서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에 맞춰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답변을 들어도 다른 평가항목에 채점합니다. 같은 답을 들어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러니 누가 들어도 멋들어진 대답을 해야만 하고, 면접 10분간 그런 답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잔 펀치 여러대보다 강펀치 한방이 인상에 남습니다. 면접은 정량화되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싸움입니다.

준비를 한다 해도,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해도 높이 평가받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과 다른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답변이 높이 평가받습니다.

대학별 평가 기준에 맞는 답변을 준비할 수 없다
높이 평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CHAPTER 1-3. 면접은 문답이 아니다. 대화!!!!!!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 다수가 하나의 답에 하나의 문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면접은 대화입니다. 자연스레 흘러가야 합니다.

한 쌍의 남과 여가 처음 만난 날을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은 너무 어색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각자 마음속에 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남자가 묻는 말에 여자는 준비한 대답을 하고, 여자가 묻는 말에 남자 역시 준비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는 드문드문 이어지고, 10초라도 말이 끊어지면 긴장한 남녀는 10초 만에 진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궁금한 내용이 없어서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가끔 마음이 맞는 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지고 서로 흥미를 가진 내용이 주제가 됩니다. 아쉬운 10분이 지나면 생각합니다. ‘저 사람 다시 보고 싶다.’

이 이야기의 중심을 아시겠지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되,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한 답안이 일방적인 주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내 주장에 상대는 감동을 받지도, 설득 당하지도 않습니다. 대화는 흐름입니다.

학급 회장 이야기를 하다가 동아리 얘기가 나온다면,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겁니다. 세특 얘기를 하다가 동아리 얘기가 나온다면, 동아리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같은 얘기도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대화의 묘미죠. 그러니 제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세요.

면접은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질문에 답하세요. 제발

CHAPTER 1-4. Fact 가 아닌 Information 이다!!!

면접 준비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해마다 크게 세 유형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 대답을 아예 못하는 학생
- 곧잘 답하지만 질문과 무관한 말을 늘어놓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학생
- 확신에 찬 눈빛으로 생동감 있게 답하는 학생

보통의 면접 시간은 10분, 그 안에 지원자의 지난 3년을 풀어놔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니 가장 중요한 몇가지로 10분을 가득 채워야 성공적인 면접이 됩니다. 그런데 답을 아예 못하는 학생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말이라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면접관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침묵은 대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곧잘 답변 하지만, 그 말들이 헛소리인 학생이 있습니다. 처음 경우보다는 낫지만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구령이 담 넘어가듯 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이 글의 목표는 두 번째 유형의 학생을, 누가 생각해도 매력적인 세 번째 유형으로 바꾸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 학생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즉각 반응 하듯 답하면 두 번째 유형이 되기 쉽습니다. 질문을 들으면 3~5초 정도, 아주 잠시라도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고 답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잘 못 들었는데 급한 마음에 답변부터 하려다가 두 번째 유형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 들었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 됩니다. 면접은 시험이 아닌 대화입니다. 매끄러운 대화를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은 전혀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다음, 답변을 **fact** 로 하는 학생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지겹죠?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답해야 **fact**가 아닌 **information**이 되어 답변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면접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어떤 나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까지는 **fact**입니다. 그리고, 이런 팩트는 여권만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겪은 에피소드, 다녀와서 변한 마음가짐이 여행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서술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information**이 됩니다. 즉,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한 생각과 탐구의 구체성이 다른 지원자와 차별점을 갖게 하며, 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며 구글링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답변에는 **fact**만 가득합니다. **information**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순서를 뒤집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생명공학 전공을 희망하는 친구들 대부분 뽀빠입니다. 크리스퍼, 센트를 도그마, 표적항암제, 단백질 생성, 플라스미드 등 크고 작은 몇 개 키워드가 있을테고, 질문이 나오면 답하려고 구글 학술검색을 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글 검색을 나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두 비슷한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둘째로 질문에 대한 첫 답변이 내가 아는 최고치이기 때문에 꼬리질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 이 둘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답을 하기 때문에 차별점이 없어서 비슷한 점수를 받고, 서류평

가 순서를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내 극한의 답변으로 시작하니 이어지는 면접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역량이 없는 학생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니, 구글링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생생한 답변을 준비하는 쪽이 좋습니다. 게다가, 면접관은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진짜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부풀려 포장하지 말고, 이미 부풀려 놓은 상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고 면접관이 느끼게 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information**을 다양하게 제공하면 됩니다. 주위에 "야! 이 친구는 정말 말을 잘해!"라고 느끼는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사례를 계속 들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면접 준비는 사례로 시작합니다. 사례가 **information**이 되고, 준비하지 않아도 **fact**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안에 이미 있으니까요.

무슨 예기든 해라. 그래야 대화가 시작된다
질문을 들은 후 이해하고 답해라. 듣지 못했다면 반문하라
fact가 아닌 information이다. 그리고 구글링은 자제하라
부풀리기는 학생부와 자소서로 충분하다. 이제는 수습할 때다

CHAPTER 1-5. 너무나 당연한 면접의 자세.

입실 후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여쭙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평가자의 미간이나 인종을 바라봅니다. 면접 후에는 의자를 정돈하고, 나가기 전에 큰 소리로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당연한데도 최근에는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집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교수님들은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어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변인들이 그들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인지 예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 전제는 예절입니다. 이 조차 되지 않으면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태도에 관한 다른 얘기는 면접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정중하게 다시 요청을 하고, 평가자가 여러분의 얘기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 또박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상대방의 얘길 끊지 말고, 끝까지 들은 후 자신의 얘기를 조리있게 합시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면접관의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시작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어떤 답을 할지 생각하시고 5초 후 얘기하세요.

예의를 지키는 대화라고 생각하면 크게 벗어날 일이 없다

CHAPTER 1-6. 높이 평가받는 첫 걸음. 두괄식 답변!!

답변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소개서는 두괄식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텍스트는 끝 부분을 읽다가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접은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시작부터 상대의 호감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해야 하고, 호감은 ‘상대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칼같이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고, 이해한 후, 그에 답하는 것이 시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괄식 답변이 중요합니다.

Prologue에서 했던 얘기가 ‘면접관은 너를 모른다’ 였습니다. 타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는 건 아시죠? 10분간, 매 질문의 첫 인상이 두괄식 답변으로 결정됩니다. 또 하나, 두괄식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뒤에 ‘왜냐하면’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분만의 사례를 덧붙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 자연스레 **information**을 면접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답변은 ‘두괄식’으로
그리고 ‘왜냐하면’을 붙이자**

CHAPTER

2

서류 평가 성적을 넘어
역전으로 가는 길

CHAPTER 2-1. 복습

중간은 가자

- 면접에 정답은 없다.
- 대학별 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없다.
- 면접관의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라
- 무슨 얘기든 해라. 그래야 대화가 이뤄진다.
- 부풀리지 마라. 학생부와 자소서로 충분하다.

중간 이상은 가자

- 평가는 꼬리질문에서 이뤄진다.
- 답변은 두괄식으로, 그 후 '왜냐하면'을 붙인다.
- fact가 아니다. information이다.

CHAPTER 2-2. fact를 information으로 변환하자

평가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양의 fact와 적은 양의 information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fact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평가자는 이 fact에서 information을 추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fact를 information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학생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거기 기록된 사실들을 의미 있는 정보 즉, 구체적인 동기와 경험 그리고 확장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당시 내가 했던 행동과 생각, 친구들의 반응, 거기 들어간 지식과 인성 등의 상황을 모두 기록합니다.

상황에 대한 기록이 끝나면 이제 filtering을 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부여합니다. 면접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든 싫든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질문하기 싫다고 해도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질문 10개 정도에 대한 답변과 대화가 오가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내게 유리한 답변'에 우선순위를 둔 후, 준비했던 다른 답변은 모두 삭제해서 알찬 10분을 만들려는 준비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선생님이 관찰한 학생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대충 기록하기도 하고, 대충 했지만 부풀려 기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내용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학생이 했다고 믿습니다. 학생에게 2년 전의 일도 면접관에게는 서너페이지 전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러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저는 '대학의 관심여부.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성취. 기록의 빈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대학이 관심가질만 하고, 지원자도 노력했고 성취를 이뤘으며, 자주 기록된 내용이 1번입니다. 이후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fact는 information으로 변환 후 filtering하자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두자

CHAPTER 2-3. 주장이 아닌 설득의 단계를 예비하자

주장이 아닌 설득의 단계를 예비합니다. filtering을 거쳐 순위를 매긴 녀석들 중 상위그룹을 3~4개의 범주로grouping한 후, 하위 그룹을 하부 branch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그 하위그룹을 상위그룹의 준비단계 또는 사례로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눈치 채셨나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평가자에게 가치 있는 답변'을 미리 작성해두고 있다는 것ですよ. 이렇게 분석해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분류해두고 이에 합당한 질문을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제 경우엔 질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우발적인 질문만 이어가되 준비해둔 답변을 보고 구조화하여 읽는 연습만 죽도록 시킵니다.

면접문항 출제와 일반적인 시험문제 출제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학교 시험이나 수능을 생각해 보세요. 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출제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과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정보가 있습니다. 즉,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적절하다고 평가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고집어내기 때문에 수험자는 출제자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서류확인면접은 다릅니다. 출제하는 사람 머릿속에 정보가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봐야만 하고 그 안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chapter1에서 얘기했던 정답이 없다는 말과도 상통하는데요. 출제는 저쪽에서 하되 출제 범위를 정한 것은 내 쪽이라는 거죠. 내가 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보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답하면 저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답의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듯 해 보이는 녀석들을 중요도의 상단에 자리 잡게 하면 평가자는 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공과 관련한 이야기들이나 내 인성이 돋보이는 사례를 최상위에 자리잡고, 여기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하부 구조를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information을 grouping한 후 구조화하자
면접의 정답은 평가자가 아닌 내가 쥐고 있다
내가 뭐라고 해도 그 답이 정답이다. 다만, 논리를 갖춰라

CHAPTER 2-3. information의 grouping 예시

앞에서 information을 grouping하자고 했습니다. 한 학생의 예를 보겠습니다.

|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 | 지 각 | | | 조 퇴 | | | 결 과 | | | 특기사항 |
|----|------|------|----|----|-----|----|----|-----|----|----|-----|----|----|------|
| |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
| 1 | 191 | . | . | . | . | . | . | . | . | . | . | . | . | 개근 |
| 2 | 190 | . | . | . | . | . | . | . | . | . | . | . | . | 개근 |
| 3 | 1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상 명 |
|---|
| 교과우수상(실용영어 I) |
| 노력상 |
| 과학의 날 행사(과학마인드 함양을 위한 과학 만화 그리기 부문, 공동수상, 2인) |

| 수 상 명 |
|----------------------|
| 수학 문제해결력 겨루기 대회 |
| 논리추론대회 |
| 교과우수상(물리 I) |
| 화학실험설계대회 |
| 교내 심폐소생술대회(공동수상, 2인) |
| 2018학년도 논리추론대회 |

| | | | | |
|---|--------------|----------------|----------------|---|
| 1 | 컴퓨터 | 화이트 해커 | 화이트 해커 |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흥미가 있고, 해커 중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에 매력을 느끼고 희망함. |
| 2 | 컴퓨터, 알고리즘 짜기 | 전기전자공학자 | 전기전자공학자 | 단순한 프로그래밍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더욱 실생활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실생활에 적용시킬 여러 방법들 중 관심이 생긴 회로 쪽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전기전자공학자를 진로로 정하게 됨. |
| 3 | 프로그래밍 공부하기 | (게임 or 앱)프로그래머 | (게임 or 앱)프로그래머 |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에 관심이 더 가게 되어 진로가 바뀌었고, 만드는 것 중에서 게임이나 앱 개발에 흥미가 가기 때문에 진로를 변경하여 선택함. |

자율활동

- 1학년 : 봄소풍, 과학의날 글짓기, 체육대회, 독도바로알기행사, 가을소풍, 우리말겨루기, 동계올림픽 체험, 마라톤대회
- 2학년 : 1학기 임원출마 탈락, 테마여행, 자치법정, 정보통신윤리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 2학기 임원출마탈락, 자연과학캠프에서 단종묘 탐방,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치법정
- 3학년 : 입학식, 학급자치규약 정하기, 학급회의, 봄소풍, 학급자치법정, 체력검사,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 1학년 : 일본 전통놀이 및 일본문화 조사부. 켄다마, 간다마츠리 조사. 731부대, 험한시위 조사.
- 2학년 : 수학문제풀이 (문제 해결 시 먼저 원리를 인식하고 평소 배운 수학 내용을 통해 창의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리더십, 수학적 탐구력, 창의력, 사고력이 많이 향상됨). 과학학습동아리 (일상에서 적용되어 있거나 평소에 궁금한 과학지식에 대해 조사와 발표, 토론을 하는 동아리에서 갤럭시노트7에서 리튬배터리가 폭발하는 원인에 대해 알게되고 음펨바효과에 의해 물의 온도에 따라 냉각되는 속도가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짐. 영구 동력의 존재여부에 대해 동아리원들과 토론을 함)
- 3학년 : 진로탐색반 (커리어넷을 활용하여 직업 및 학과 정보를 탐색), Ideal Of IT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고, 프로그램 만들기에 도전하고 싶어함. 프로그래밍 언어 중 파이썬을 선택하여 공부해 여러 코드들을 익히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함. 파이썬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교해보며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함.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학 교과에 적용시켜 확률을 계산하는 활동을 함), Physics (MBL 기구들을 이용한 탄성 충돌실험에 참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진로활동

- 1학년 : 선후배 만남의 날.
- 2학년 : 진로진학 컨설팅,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중 C언어를 선택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알고리즘을 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진로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고 함. 회로와 관련된 지식들을 직접 공부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비슷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과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함.
- 3학년 : 진로컨설팅. 수시 박람회. 컴퓨터를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아회를 공부하며 프로그래밍 범위를 확장시키고 수준을 높음

봉사 : 1학년 59시간, 2학년 45시간, 3학년 7월까지 39시간. (개인봉사 3년간 총 62시간 중 3학년에 로봇과 코딩봉사 27시간)

「1학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 국어 : 책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상과 인상깊은 부분을 기록하여 감상문을 제출하였음. 풍부한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이로 인해 받은 영향을 선명하게 기록하였음.
- 수학 1 : 없음
- 수학 2 : 2진법 경우의 수
- 실용영어 1 : 통사론에 관심이 많음. 문법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함. 영어 뉴스와 잡지를 읽음
- 실용영어 2 : 영어작문 함.
- 사회 : 식량 주권 관련 기사 찾아 요약 발표함.
- 한국사 : 조선 후기 경제 표현 활동에서 농민 계층 분화 현상이 하위 계층 농민 차별을 악화시켰다고 발표함. 20초 연극에서 선조역할을 맡음
- 과학 : 수업을 열심히 들음. 위도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다른 이유를 적도에서 상승하는 기류로부터 극지방에서 이르기까지 그림으로 설명함.

「2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문학 : 꾸준하고 성실함. 작품 감상

- 확률과통계 : 오답풀이를 성실히 함
- 미적분 1 : 친구의 수학 멘토 역할을 함. 미분과 물리를 연관하여 학습함.
- 미적분 2 :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 유형의 문제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며,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부족한 부분을 심도있게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음. 친구들과 서로의 풀이방법을 공유하며 자신만의 풀이방법을 알아내어 문제를 다시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보임.
- 영어 1 : 설록의 추리에 관한 글을 읽고 인문 간의 관계나 사건의 전후 맥락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짧은 영어 문장으로 씀. 우리 고장 소개 UCC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내용의 단편영화 형식의 창의적인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동료 학생 뿐 아니라 평가 교사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음.
- 영어 2 :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한 지문을 읽고 관련 자료 정리함.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와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중략...프로그래머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단어 테스트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물리 1 (1학기) : 논리와 알고리즘을 좋아하여 자연스럽게 물리에 대한 관심이 커 성취도도 높음. 특히 전자기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전자석을 이용하여 자동차문을 여닫을 때 쉽게 닫히거나 세계 닫히지 않게 하여 소음을 줄이거나 하는 방안을 고안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임
- 물리 1 (2학기) : '양자 물리학은 신의 주사위 놀이인가'를 읽으며 수소 전자의 이동에 따른 에너지 출입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다고 하며,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함. 처음 준위와 나중 준위의 위치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빛의 에너지와 계열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 학습과 진로를 연결시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지구과학 1,2학기 : 세특이 없음.
- 화학 1 (1학기) : 화학반응계수를 설명하는 조의 조장으로서 개성 있는 조원들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하였으며, 화학반응계수를 이용하여 화학반응식을 설명할 때 매점에 파는 음료수 세트를 예를 들어 즐거운 분위기로 설명을 함.
- 화학 1 (2학기) : 루이스 전자점식을 원자에서 분자로 확장해가며 발표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전지에 대해 따로 조사하여 레포트를 제출하였으며, 레포트 속에 전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금속의 반응성과 다양한 전지의 종류와 원리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출함.
- 생명과학 1 (1학기) : 세특 없음
- 생명과학 1 (2학기) :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끝까지 질문을 통하거나 다른 책을 참고하여 해답을 얻어가는 끈기를 보임. 내용 정리도 잘 되어 있어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도 즐기는 모범적인 학생임.
- 과제연구 : 이어폰 형태에 따른 세균의 증식 정도(38시간), 차씨거기의 항균효과 비교와 이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32시간)
- 프로그래밍 : 도교육청이 주관한 '2017학년도 개방형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형'에 참여하여 이수하였음. 프로그래밍의 코딩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수학교과와 수식계산 및 실생활에 활용되는 체지방량 측정, 마방진 풀이 등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짐. 또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웹사이트 및 자료를 수집하여 웹호스팅을 통해 웹페이지 형식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프로그래밍의 실생활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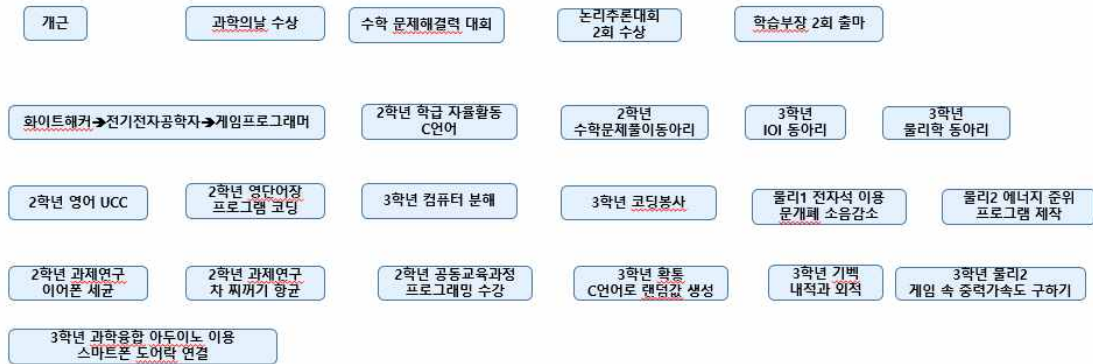
「3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독서와 문법 : 방과후 학교 수강
- 화법과 작문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다양한 진로활동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글을 씀
- 확률과 통계 : 확률 단원을 배우면서 이벤트, 게임, 로또 등 여러 방면에서 랜덤으로 정해진 값이 사용되는 것이 궁금하고 확률적으로 동일한지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겨 C언어를 통해 랜덤값을 생성하고 각각의 값들이 일정하게 나오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함.
- 기하와 벡터 : 벡터의 외적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공간도형에서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외적을 이용한 다른 방법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활용법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임. 이게 그치지 않고 내적과 외적을 응용한 삼중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여 수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임.
- 영어독해와 작문 : 수업시간 전 해당 지문의 어휘를 숙지하는 학생으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임. 어휘력 쪽지시험 100%정답률을 기록함.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인터넷 개인방송을 예로 들어 급우들의 이해를 돕는 발표를 진행함.
- 물리 2 : 수업 시간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으로 수업 내용 필기도 성실하고 질문에 답변도 열심히 함. 정답이든 아니든 항상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도 있었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고쳐나가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 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등장하는 양자 현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를 슬릿을 통해 설명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냄. 게임 속 중력가속도를 측정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력가속도 값이 0.26이 나오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게임 개발사의 홈페이지까지 찾아보는 노력까지 함.
- 과학융합 : 사물인터넷을 품은 아두이노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직접 아두이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였으며, 이후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도어락 시스템을 만든 경험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독서 : 1학년 8권, 2학년 9권, 3학년 3권 (프로그래밍 관련 교양서 5권, 프로그래밍 서적 3권)

=====

이상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학생에게 의미 있는 내용만 따로 추출합니다. 이 때 포인트는 두 가지로 잡습니다. 첫째, 키워드로 추출할 것. 둘째, 학생부는 자주 반복해서 읽는다. 첫 번째 이유는 진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의 이유는 혹시 모를 의외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시로 든 학생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키워드를 맥락을 갖도록 배열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이외의 공부’, ‘인성’ 이렇게 세 개의 큰 맥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한 키워드를 맥락에 따라 바탕색을 달리해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부에 여기 저기 흩어져있던 경험을 모으고 분류했습니다. 이제 이 키워드를 이어 말하면 information이 됩니다. 쉽죠?

의미 없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 과감히 버려라
의미는 키워드로 추출하라
추출한 키워드는 그룹으로 묶어라

CHAPTER 2-4. 질문이 먼저? NO~ 답이 먼저? YES~~

질문을 수집, 수백개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만들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아무리 다양한 질문을 해도 내가 준비하지 않은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준비한 답변'이 먼저고, 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지난 고교 3년간의 키워드를 맥락에 따라 그룹화 했습니다. 즉, '인성, 끈기, 리더십, 배려'등에 관한 질문, '창의력, 전공을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학습'에 관한 질문, '프로그램, 코딩'에 관한 질문의 세 부류 이외에 우리가 답할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등하갓길에 반복해서 읽는 학생부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그리 비중 있는 질문은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예시 : 학생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 말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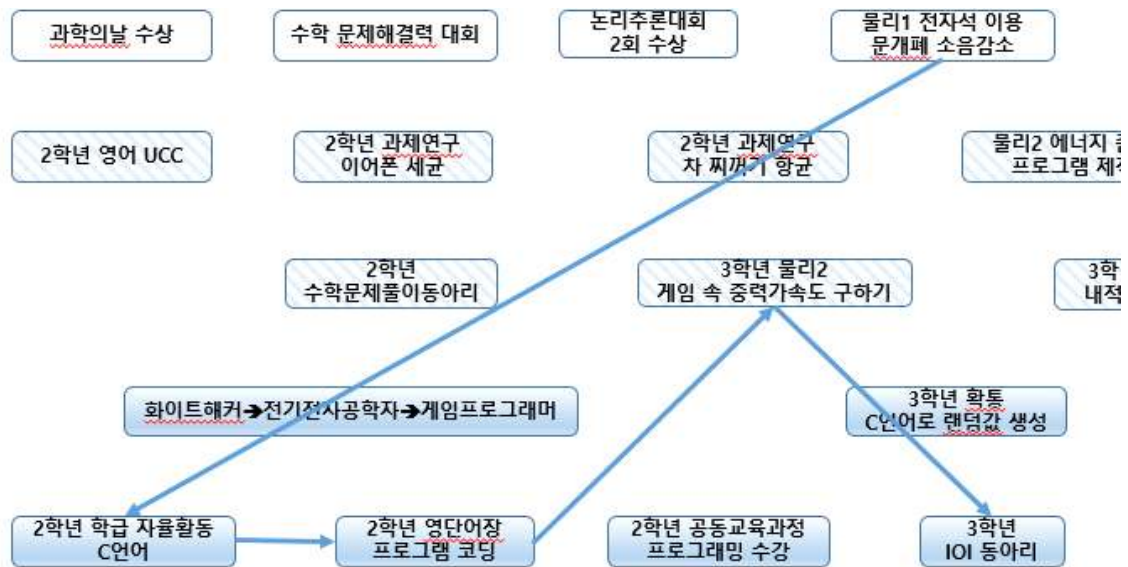
- 약점



- 강점



질문예시 : 진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을 예상하고 답을 만들면 어렵다.
답을 먼저 만들고 상황에 적용하라**

키워드를 이어가며 답을 하라. 키워드는 다섯 개를 넘지 마라

**첫 키워드는 동기, 가운데 키워드는 구체적 사례,
마지막 키워드는 미끼를 던져라**

CHAPTER 2-5. 내가 주도하는 꼬리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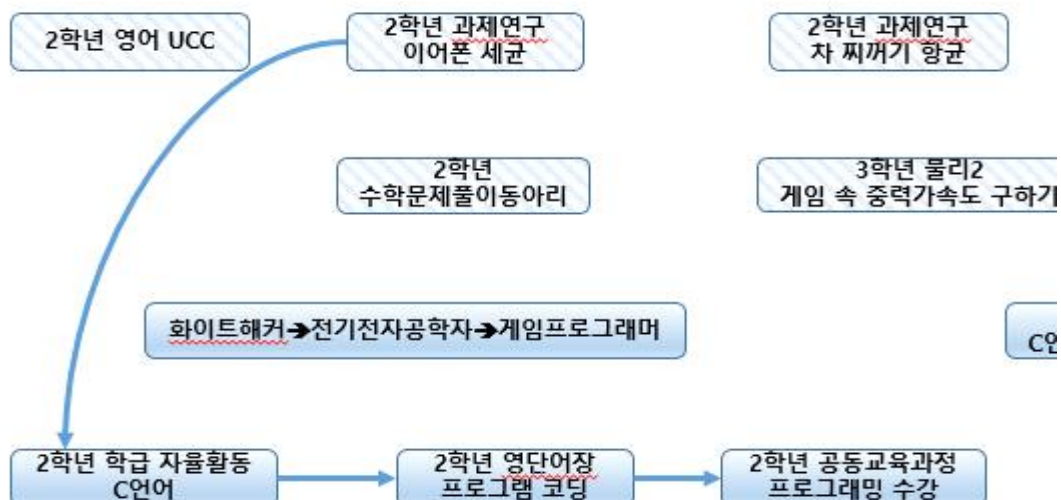
앞에서 첫 키워드는 동기요, 가운데 키워드는 구체적 사례로, 마지막 키워드는 미끼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 질문과 답변을 다시 가져와 볼까요?

예시 질문 : 학생이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예시 답변 : 저는 두 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말솜씨로 친구들에게 어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급 회장도 아니고 학습부장을 두 번이나 나갔지만 두 번 다 떨어진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제 강점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려 노력했습니다. 수학 문제해결력 대회나 논리추론대회에서 이런 면이 장점으로 작용하여 상을 받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 생활 속 문제점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제연구 시간에 이어폰에 있는 세균을 증식하거나, 차 찌꺼기의 항균효과를 알아볼 때 제 이런 면이 가장 잘 드러나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아 조장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끼는 넷입니다. 수학문제해결력 대회, 논리추론대회, 이어폰 세균, 차 찌꺼기 항균. 이중 이어폰의 세균 증식 실험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픈 얘기는 코딩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코딩 얘기만 나왔으니 임의로 심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예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문 : 또래 상담 동아리를 3년 내내 했네요? 이유가 있나요?

답 : 실제 상담과 이론적 배경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3년 동안 꾸준히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은 심리학자 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가 되기 이전에 심리 상담가를 거쳐 존중과 공감의 방법으로 타인을 돕는 구체적인 방식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싶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어기역차나 원무지계등의 정형화된 틀을 우선 배웠는데요. 이는 후에 아들러의 이론을 공부하는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 : 아들러의 이론을 공부했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답 : 개인 심리학의 체계를 세웠으며 지지심리요법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입니다. 아들러의 이론 중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열등감과 우월감 그리고 공감을 통한 치유입니다. 어기역차가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기분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하고,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의 줄인 말인데 이 내용들이 아들러의 이론과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문의 깊이를 가지려 노력하다 보니 친구들을 상담하는 데에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문 : 친구들에게 직접 적용해 본 사례가 있나요?

답 : 비슷한 내용을 상담해온 친구 둘 이 있었는데요. 한 친구에게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해법을 제시해가며 대화했고, 다른 친구와는 절대적으로 고민을 들어주는 쪽으로만 해 봤습니다. 적절히 섞기 보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를 비교해보려 했는데요..... 중략... 그러다 보니 제가 많은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는 없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서 자기표현 훈련이나 혐오치료 등을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꼬리는 내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면접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끼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미끼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무심코 이를 다시 질문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동기와 과정은 자세히, 매우 자세히
결과는 핵심만 짚어서**

CHAPTER 2-6. 입학사정관의 말

일반적으로 서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면접상황에서 서류에서 나타난 역량 이상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로롭게 한 모집단위에 같은 학교 같은 과제를 수행한 팀원들이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은 팀 내에서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역할 이상은 답변하지 못하는 반면, 이 과제의 전체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도 있죠. 이 과제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결과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비슷한 학교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전체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학생과,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한 학생은 답변의 깊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내실 있는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은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죠? - 입학사정관A

학교생활기록부나 추천서에서 드러나는 역량에 비해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내용이 월등하거나 결과나 과정이 부풀려진 경우에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큼니다. - 입학사정관B

지원자 스스로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서류를 살펴보고 질문을 예측하여 답변을 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고교생활을 회상해보고 각각의 활동에서 배우고 느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면서 요약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학사정관C

질문의도에 부합하는 답변과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학 개교 이래 면접을 가장 잘 봤다고 평가받는 학생에 대해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말을 더듬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묻는 말에 천천히 요점을 설명한 타입이었습니다. - 입학사정관D

입학사정관도 말합니다.

- 너의 얘기를 자세히 해라
- 부풀려 말하지 마라
- 천천히 논리적으로 말하라

이를 우리 멋대로 해석하면

- 키워드를 추출하면 니 얘기가 나온다
- 학생부에 있는 얘기만 하자. 구글링 금물
- 키워드의 흐름을 타라

CHAPTER 2-7. 면접에서 가장 당황할 때는?

면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때가 언제일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의외의 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을 질문할 때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전혀 모르겠으면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입학 후 배울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원자가 많이 고민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론을 면접관이 질문한다면? 그리고 그 답을 하기 어렵다면? 마치 지금껏 고민했다는 주장이 거짓처럼 들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학생들은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고 동공이 풀리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준비합시다.

- 자기소개서에 무상교육에 대해 토론하며 발표력과 사고력을 키웠다고 되어있네요? 어떤 입장이었나요? 그럼 반대측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왜 반대측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나요?
- 청소년 팬덤 문화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었다고 되어있네요? 순기능은 없을까요? 팬덤문화가 인간소외현상을 강화한다고 했네요? 인간 소외가 무엇이죠?
- 자소서에서 본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극복해야한다고 했네요? 개인주의가 나쁜 건가요?
- 자소서에서 국산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당위적 서술이 있네요? 왜 국산제품을 이용해야 하죠? 질이 떨어지는 국산과 우수한 질을 가진 외국산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건가요? 애국심 이외의 논리는 없나요?
- 국산제품만 이용하다 보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내가 하려는 주장에 반대로 배치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당황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토론한 경험이 학생부와 자소서에 있다면,
면접에서 준비한 답변이 ‘당위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반론에 반론을 준비하라**

CHAPTER 2 요약

기초편

- fact 와 information 의 구분은 당사자만 할 수 있다.
- fact는 버린다. information만 키워드로 추출하자
- 추출한 키워드는 그룹화하고 브랜치로 엮어라
- 브랜치별 질문 범주를 미리 정하고,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자

응용편

- 3개~5개의 키워드로 답하자.
- 처음과 중간은 자세히, 마지막 키워드는 자신있는 내용으로 간략히 하자.
- 브랜치와 브랜치를 오가는 답변은 면접에 흥미를 더한다.

CHAPTER

3

그래도 모르겠다면?

면접 준비가 너무 어렵다면?

기본만 해서 서류점수를 까먹지 말자!!!

CHAPTER 3-1 언제나 나오는 질문

- 자기소개 하기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지원동기 + 자신의 장점과 단점

사실 반드시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빈도가 높긴 합니다. 중앙대학교에 지원했던 학생들 얘길 들어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기소개와 마지막 한마디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 반면, 경희대학교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그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1분 정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장점 30초, 단점 30초 정도로 끊어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에 갖다 붙이기 좋기 때문입니다.

지원동기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원동기가 무엇인지를 묻지는 않더라도, 입학 후 꼭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이라던가 고교시절 동아리 중 이어가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과 같은 방식으로 돌려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2016학년도까지는 거의 매번 출제 되었지만 2017학년도 부터는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럼 자기 소개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또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답은 하겠습니다. 보통은 진로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대략적인 준비과정, 그리고 그 꿈을 해당 대학에서 이루고 싶다는 쪽으로 하자고 지도합니다

그 꿈을 해당대학에서 이루고 싶다는 마지막 답변은 지원 동기?를 묻는 낯시 질문이 되죠. 우주과학과를 지원한 학생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문우주 커뮤니케이터를 꿈꾸는 000 입니다. 천문우주 커뮤니케이터는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우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변형해서 소개하는 직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제가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을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게 변환할 줄 알아야 하고, 재치 있는 언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끊임없이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 망원경으로 청동현상을 관측하고 경도청동과 위도청동 및 케플러의 법칙관련 공전 각속도 등이 달의 위상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도표로 정리했으며, 이를 갤럭시라는 어플을 가지고 고2때 만든 자율동아리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제 꿈인 천문 우주 커뮤니케이터를 직업으로 갖기 위해서는 관측천문학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한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 내용을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 입학하여 배우고 싶고, 교수님들을 강의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면서 자기소개소개는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만.. 이름과 출신학교, 부모 직업 등을 제외한다는 유의사항만 지킨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열정과 의지. 당찬 포부를 보여주는 걸로. 혹은 준비했으나 면접에 나오지 않은 핵심어를 포함해서 큰 소리로 눈치 안 보고 떠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물론, 준비해 간 얘기들 중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했다면 그 얘기를 해야죠.

지원동기는 거의 100% 나옵니다. 여기에 꼭 포함되어야 할 얘기가 있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준비과정. 그래서 이 학과에서 이 내용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다른 대학이 아

닌 이 대학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렇게 공부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지. 우주과학과 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우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등의 영화에서 그리고 공통과학의 프리드만 우주모형이나 항성의 진화과정에서, 또한 고등학교에서 했던 우주 캠프에서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낮에는 천문학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밤에는 천체를 관측하며 지내다 보니 겉보기와 절대 등급을 눈으로 확인하며 광도를 체크하던 기초부터 시작하여 임계밀도와 우주상수 값의 관계에 대한 논문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빅뱅이론의3가지 한계나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우주모형등은 선행연구를 하신 교수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경희대학교 장민환교수님을 비롯하여76cm 주망원경을 보유한 경희대학교에 진학하여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로 관측하는 보다 발전하는 제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다면 교수님들 얘기는 빼는 거구요. 지원동기를 묻지 않았거나, 물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서 지나가 버렸다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물을 때 하면 됩니다. 만약 마지막 한마디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일어서면서 강한 어조로 말합시다. “꼭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라고요. 반드시 사정관들의 눈을 응시하며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차게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죠? 지원동기는 자기소개서4번을 떠올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기소개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지원동기는 필수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CHAPTER 3-2 어디가도 알려주는 면접의 기본

면접을 앞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저 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면접 파일의 압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쓸데없이 긴 문서를 만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1. 대화를 해라. 면접관이 질문을 마치기 전에 끊지 마라 제발. 질문 마치자마자 벼락같이 답변을 뱉어내듯 덤비지도 마라. 면접관이 니 얘기를 듣기위한 준비할 시간을 줘라.

2. 면접에 정답은 없다. 준비했던 답변이 기억나지 않아도, 생각했던 루틴이 엉망이 되어도 괜찮다. 면접관은 니가 무슨 답을 준비했는지 모른다. 그러니 논리만 있으면 정답이다.

3. 과거에 관한 질문은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답해라. 미래에 관한 질문은 양괄식으로 답해라. 사례가 없으면 공허한 외침이 되고, 양괄식이 아니면 서류 읽다가 답변 못들은 면접관이 채점하기 곤란하다.

4. 인성에 관한 질문과 학업능력에 관한 질문. 딱 두가지 밖에 안나온다. 어느 갈래인지 명확히 캐치하고 묻는 말에 답해라.

5.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서 손해보는 사람 못봤다.

CHAPTER

4

명배우 구미 김사부님의 면접 재연

상황 1 : 000 학과 지원생

상황 2 : 000 학과 지원생

상황 3 : 000 학과 지원생